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이슈브리핑 29호 (발간일: 2024.7.22.)

캠프 데이비드 1주년: 사이버 안보협력 전개와 과제¹⁾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개요

작년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이었던 군사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를 이루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의 결과물은 특이하게도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그리고 '협약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세 가지 형태로 분할되어 발표되었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이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상징성과 향후 심화할 3국 정책 공조의 시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정례화를 통한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매년 최소 한번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 상무(산업), 재무, 국가안보실 장관급 회의를 3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또한 인태전력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3국 인태전략을 조정하는 차관보급 대화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 중심의 한일관계 개선은 미 인태전략의 핵심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공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명시적으로 촉구하였고, 인태전략의 10대 행동계획(action plan)²⁾ 중 하나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캠프

¹⁾ 이 글은 2024년 7월 17일 제10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²⁾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데이비드 정상 회담을 통해 미국은 비로소 인태전략의 완전한 구현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다. 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기대하는 것은 한국을 인태지역 안보의 강력한 파트너로 삼는 것이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IT와 첨단기술 강국인 한국이 미 인태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연합훈련, 미사일 정보 공유, 해양 안보 협력을 약속하였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과학 혁신 협력하기로 공약하였다. 협력 분야에 여성 경제 활동 지원 및 암 치료 공동 연구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간 다양한 협력 분야를 언급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버안보의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향후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인 점은 분명하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의 확대와 심화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한미일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도 가늠할 수 있다.

2.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현황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과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대한 공동 대응, AI 등 기술안보, 그리고 인태지역 기술 인프라 지원 관련한 협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된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3자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결과에 맞춰 한미 양국은 양국 사이버안보 공조체제를 일본으로 확대하였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원으로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북핵 차석대표가 주재하고 사이버 가상자산 유관 부처가 참석하는 실무그룹에 일본이 포함되었다. 한미일은 2023년 10월 워싱턴DC에서 앤 뉴버거(Arne Neuberger)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모여 각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협의체로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였고, 한미일 외교부도 2023년 12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을 창설하는데 합의하였다. 즉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에서 논의를 ‘북한 사이버 위협 실무그룹’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³⁾

향후 사이버안보는 한일 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더 심도 있는 한일 안보협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 기시다 정부가 강조하는 안보분야 중 하나는 사이버안보 전략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과 취약한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³⁾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0035600504>

내부 사이버 안보 시스템 개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기존 협력국인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인도 외에도 국제 공조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⁴⁾. 북한과 최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일 간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협력은 한일간 협력 잠재력이 가장 큰 안보 협력 분야 중 하나이다.

다만 이미 고도화된 한미와 미일 간 사이버 협력에 비해 한일 간 사이버 협력 수준은 아직 보안 인프라 구축 및 민관 기술협력 등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5월 14년만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치안총수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비롯해 사이버 안보·범죄 확산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과 '사이버 동맹' 수준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미국과 '사이버 동맹'이라고 불리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SCCF)를 체결한 것과 같이 일본은 미국과 10여년 넘게 '사이버 방위 정책 실무그룹(CDPWG)'과 고위급 '미일 사이버 대화'를 운영하고 있고 2015년 사이버 안보 협력 조항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추가하고 인태전략 차원에서 전략적 보조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한일 간 사이버 협력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향후 한미일 사이버안보 발전을 위한 과제

향후 캠프 데이비드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관계의 심화가 필요하다. 기타 안보 분야에서보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일 안보협력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한일은 사이버 안보 협력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일 간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해 크게 3가지 분야를 들 수 있다.

1) 허위정보 공동 대응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는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중국과 북한이 해외 거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허위정보를 확산하고 허위정보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

국정원은 작년과 올해 총 216곳의 중국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발각했고, 북한의 공작기관들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위장 매체들이 확산하는 허위정보 작전의 목표가 남남갈등 유발과 반미·반일 정서 확산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

4) 김숙현. "기시다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동향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244호. 2023년 12월

허위정보가 정보전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허위정보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국무부의 해외 여론공작 대응 부서인 'Global Engagement Center'를 필두로 FBI,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에서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부서가 신설되었고, 국가정보장실(ODNI) 산하 '적대국 악성 영향 대응센터(FMC: Foreign Malign Influence Center)'가 조정을 맡는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우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 사이에 분산되어 있지만, 허위정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미국과의 공조가 확대되면서 미 FMC와 같은 범정부적 대응을 조정하는 허위정보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인태지역 ICT 커넥티비티 구축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ICT를 포함하는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미일 개발금융기관 협력이 언급되어 있다. 한일 양국이 이미 아세안+3 참여국이며 각각 아세안 지역국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태전략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ICT 인프라 구축은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로 일환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하며, 미 정부가 중국 화웨이를 중점적으로 제제한 배경에는 화웨이가 디지털 실크로드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점도 작용하였다⁶⁾. 한일 양국은 데이터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해저 데이터 케이블망 구축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도 중국을 배제하는 해저 케이블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⁷⁾

이미 미국은 민간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해저 케이블망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의 경우 '태평양 커넥트(Pacific Connect)'라는 태평양 도서국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데이터 케이블망 프로젝트에 10억불을 투자하였다.⁸⁾ 일본도 남태평양 도서국에 상당한 개발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경험과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에 참여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미 지원을 약속한 태평양 도서국 ICT 인프라 개발지원의 방편으로 해저 케이블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한 ICT인프라 구축에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많은 개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에서 한일 협력은 확장성과 안보·경제적 시너지가 크다.

3) 한일 고위급 사이버 대화 신설

⁵⁾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229/123746259/1>

⁶⁾ 고명현, "사이버공간의 신지정학"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2020년 12월

⁷⁾ 고명현, 임정희,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2년 12월

⁸⁾ <https://cloud.google.com/blog/products/infrastructure/pacific-connect-initiative-to-expand>

한일 간 사이버안보 협력은 한미 SCCF 같은 '사이버 영역으로의 동맹 확대'를 지향하기보다는 고위급 대화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협의하는 '느슨하지만 포괄적인' 미일 간 협력체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략적 측면에서 한일 간 고위급 사이버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긴밀한 논의 외에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공동대응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허위정보에 대한 공동대응과 인터넷지역 ICT 인프라 구축 공동지원 등이 한일 고위급 간 논의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일 안보협력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다.

4. 결론

한미일 협력체제의 경우 한일이 각각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양국 관계는 각국의 발전 수준에 비해 심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숙제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진행 중인 협의 및 정책 대화를 들여다보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각각 미국과 정책 공조를 실행하고 있다. 결국 캠프 데이비드의 목적은 한일관계 발전이며, 계획된 한미일 고위급 회동의 정례화는 실질적으로는 한일 양국 간 회동 정례화를 목표를 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이 시작한 한미일 협력체제의 성공은 한국과 일본이 향후 어떻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사이버안보 협력은 이미 높은 수준의 한일 간 기술협력을 토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과 공통된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및 성공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를 국가안보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 구축이 절실하다.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 높은 수준의 한미일 협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차례이다.

<참고자료>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